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 前腔(前腔) 내 님물 그리스 와 우니다니
中腔 山(산) 접동새 난 이슥흐요이다
後腔 아니시며 ㉡ 거츠르신(거츠르신) 둘 아으
[A] 附葉 殘月曉星(잔월 효성)이 아루시리이다
大葉 너시라도 님은 훈디 녀저라 아으
附葉 ㉢ 버기더시니(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二葉 過(과)도 허믈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B] 三葉 몰히마리신더
四葉 슬웁튼더 아으
附葉 니미 나를 ㉣ 하마(하마) 니즈시니잇가
五葉 아소 님하 ㉤ 도람(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01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내면의 슬픔을 객관화하고 있다.
- 천상적 존재를 호출하여 자신의 결백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 대조적인 시어를 병치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설의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임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고 있다.
-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임과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강조하고 있다.

02

윗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임이 자신을 잊어버린 듯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 자신의 결백함을 하늘의 존재가 증명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보이고 있다.
- 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확장하고 있다.
- 자신을 포함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통해 임과의 재회를 꾀하고 있다.
- 자신의 행동에 어떠한 잘못도 없음을 강조하며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03

시어 '접동새'와 '殘月曉星(잔월 효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접동새'는 화자의 고독을, '殘月曉星'은 화자의 지조를 상징한다.
- '접동새'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며, '殘月曉星'은 화자의 결백을 아는 대상이다.
- '접동새'는 임에 대한 원망을, '殘月曉星'은 임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한다.
- '접동새'는 과거의 회상을 유도하고, '殘月曉星'은 미래의 희망을 암시하는 매개체이다.
- '접동새'는 공간적 배경을, '殘月曉星'은 시간적 배경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0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고려 의종 때 정서가 지은 '정과정'으로, 작가가 역모에 가담했다는 참소를 받아 귀양을 갔을 때 임금의 부름을 기다리며 지은 노래이다. 이는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인 '충신연주지사'의 원류로 평가받는다. 화자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임금이 다시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유배 문학의 전형적인 특징인 억울함의 호소와 임에 대한 일편단심이 잘 나타나 있다.

- '내 님물 그리스 와 우니다니'는 유배지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신하의 충심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거츠르신 둘'은 자신을 향한 참소 내용이 거짓임을 밝혀 결백을 증명받으려는 의지의 표현이겠군.
-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는 자신을 모함한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통해 정치적 복권을 꾀하는 것이겠군.
- '니미 나를 하마 니즈시니잇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임금에 대한 안타까움과 서운함이 투영된 발언이겠군.
-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는 임금의 총애를 회복하여 다시 관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겠군.

0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처한 공간적 배경이 유배지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시어이다.
- ② ㉡은 화자의 결백을 의심하는 임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다.
- ③ ㉢은 임의 부름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조급함과 원망을 심화한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의 정서적 고통이 타인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암시한다.
- ⑤ ㉡과 ㉢은 임과의 재회가 불가능해진 현실에 대한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보여준다.

06

㉠과 ㉢에 나타난 화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부정적 상황을 전제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은 임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며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 ③ ㉠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발언이며, ㉢은 자신의 내면적 소망을 투영한 발언이다.
- ④ ㉠과 ㉢은 모두 임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전제로 화자의 의지를 전달하고 있다.
- ⑤ ㉠은 진실 여부를 가리는 데 집중하고, ㉢은 감정적 호소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07

[A]와 [B]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과거의 인연을 강조하고, [B]에서는 미래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다.
- ② [A]에서는 외부의 증명을 통해 결백을, [B]에서는 내면의 호소를 통해 사랑을 강조한다.
- ③ [A]는 화자의 정서가 고조되는 단계이며, [B]는 정서가 절제되며 마무리되는 단계이다.
- ④ [A]는 공간의 확장을 통해 그리움을, [B]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임의 부재로 인한 절망감을 극복하려는 의지적 태도가 주를 이룬다.

08

윗글 전체에서 화자의 정서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에 대한 그리움 → 자신의 무고함 주장 → 임의 사랑에 대한 갈구
- ② 임과의 이별에 대한 수용 → 참소자에 대한 분노 → 현실에 대한 체념
- ③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 → 임의 용서 구함 → 영원한 사랑의 맹세
- ④ 임에 대한 원망 → 자신의 결백 증명 → 임과의 재회에 대한 확신
- ⑤ 고독한 처지에 대한 슬픔 → 임의 변심에 대한 비판 → 절대적 고독의 심화

09

구절 '물히마리신데'와 '슬웃븐데'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회의감
- ② 임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애감
- ③ 참소자들의 간계에 속아 넘어간 임에 대한 적개심
- ④ 임과의 재회가 늦어지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당혹감
- ⑤ 자신의 충심을 몰라주는 세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

10

윗글의 '접동새'와 <보기>의 '귀촉도'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눈물 아롱아롱 / 피리 불고 가신 임의 밟으신 길은 /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삼만 리 /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옵신 임은 / 다
시 오지 못하는 파촉 삼만 리 / (중략) / 귀촉도(歸蜀道) / 귀
촉도(歸蜀道) / 목메어 우는구나. - 서정주, 「귀촉도」

- ① '접동새'와 '귀촉도'는 모두 화자의 슬픈 정서를 투영한 자연물이다.
- ② '접동새'는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는 매개체이나, '귀촉도'는 임과의 영원한 이별을 환기한다.
- ③ '접동새'는 화자의 처지를 객관화하고, '귀촉도'는 화자의 그리움을 형상화한다.
- ④ '접동새'는 화자와의 유사성이 강조되는 반면, '귀촉도'는 화자의 청각적 심상을 자극한다.
- ⑤ 두 시어 모두 전통적인 한(恨)의 정서를 계승하는 문학적 소재로 기능하고 있다.

11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과거의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현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다.
- ② ㉯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임의 결단을 촉구하는 명령적 어조를 띤다.
- ③ ㉮는 외부의 비판에 대한 방어적 태도를, ㉯는 자신의 과오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보여준다.
- ④ ㉮는 인과 관계의 역전을 통해, ㉯는 시선의 전환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한다.
- ⑤ ㉮와 ㉯는 모두 화자의 의지가 임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 수동적 관계를 전제한다.

12

윗글의 '님'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을 잊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으면서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
- ② 자신의 결백을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호소하고 있다.
- ③ 임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을 육체적 한계를 초월한 영혼의 차원까지 확장하고 있다.
- ④ 임이 자신에게 했던 약속이 허망하게 끝난 것에 대해 깊은 탄식을 내뿜고 있다.
- ⑤ 임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을 비판하며 올바른 인식을 가질 것을 종용하고 있다.

13

윗글의 주제의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연군지정(戀君之情):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움
- ② 결백호소(潔白呼訴): 참소에 의한 억울함과 무고함의 주장
- ③ 일편단심(一片丹心):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충성심
- ④ 고립무원(孤立無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량한 신세
- ⑤ 권토중래(捲土重來):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다시 세력을 떨침

14

윗글의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를 통합적으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부의 참소로 인한 분노가 임에 대한 직접적인 원망으로 전이되고 있다.
- ② 자신의 무고함에 대한 확신이 임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③ 임과의 단절을 수용하는 단계에서 죽음을 통한 영원한 결합을 꿈꾸는 단계로 이행한다.
- ④ 임의 사랑을 의심하는 불안감이 오히려 임의 자비에 호소하는 간절함으로 수렴된다.
- ⑤ 천상적 존재에 대한 의존적 태도가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는 능동적 태도로 변화한다.

15

문맥상 ㉠ '버기더시니'와 가장 대비되는 의미를 지닌 인물은?

- ① 님: 화자가 궁극적으로 사랑을 구하는 대상
- ② 접동새: 화자의 슬픔을 공유하는 자연물
- ③ 殘月曉星: 화자의 진실을 증명해 줄 존재
- ④ 녀: 임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의 본질
- ⑤ 뉘: 화자가 원망의 대상으로 삼는 미지의 인물

0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 ② 천상적 존재를 호출하여 자신의 결백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출제의도]

작품의 핵심 표현 기법인 광명지물(천지신명)의 활용과 그 기능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② '殘月曉星(잔월 효성)'은 지는 달과 새벽별로, 화자의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천상적 존재이자 초월적 대상을 의미한다. 이를 호출함으로써 자신이 결백하다는 주장에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접동새'에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것은 맞으나, 이를 통해 슬픔을 '객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하고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
 ③ 윗글에서는 입에 대한 그리움과 결백을 강조할 뿐, 대조적 시어의 병치를 통해 상황을 부각하는 구조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부적절하다.
 ④ '늪러시니잇가', '니즈시니잇가' 등 의문형 표현이 나타나지만, 이는 원망의 표출보다는 억울함의 호소와 입의 태도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에 가깝고 '반복적'인 사용으로 보기도 어려워 부적절하다.
 ⑤ 윗글에서 '우니다니' 등 정서적 표현은 나타나나, 시각적인 하강 이미지를 주된 표현 기법으로 활용하여 상실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부적절하다.

02 내용의 비판적 이해

정답: ④ 자신을 포함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통해 임과의 재회를 꾀하고 있다.

[출제의도]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지문의 구체적 근거를 통해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④ 화자는 '버기더시니 늪러시니잇가'를 통해 자신을 참소한 자가 누구인지 묻고 있으나, 그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언급하거나 이를 통해 재회를 꾀하는 모습은 지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부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니미 나를 하마 니즈시니잇가'를 통해 입이 자신을 잊은 상황에 대한 당혹감과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殘月曉星(잔월 효성)'이 아루시리이다'를 통해 천지신명이 자신의 결백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넉시라도 님은 훈디 녀저라'는 죽어서 영혼이라도 입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⑤ '邇(과)도 허물도 千萬(천만) 업소이다'를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3 시어의 상징적 의미

정답: ② '접동새'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며, '殘月曉星'은 화자의 결백을 아는 대상이다.

[출제의도]

주요 시어의 기능과 상징적 의미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② '접동새'는 화자가 '난 이숯 효요이다(나와 비슷합니다)'라고 직접 언급하며 자신의 슬픈 처지를 투영한 대상(감정 이입)이고, '殘月曉星'은 화자의 진실('거츠르신 돌')을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殘月曉星'이 화자의 결백을 상징할 수는 있으나, 지문 맥락상 '지조'보다는 '증명자'로서의 역할이 강하며 '접동새'는 고독보다는 슬픔의 정서가 핵심이므로 부적절하다.
 ③ '접동새'는 슬픔의 매개체이지 입에 대한 원망의 직접적 상징으로 보기 어려우며, '殘月曉星' 역시 사랑의 상징보다는 진실의 증명자이므로 부적절하다.
 ④ '접동새'가 과거 회상을 유도한다는 근거는 지문에 없으며, '殘月曉星' 또한 미래의 희망을 암시하기보다는 현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으므로 부적절하다.
 ⑤ '殘月曉星'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짐작케 하지만, '접동새'를 단순히 공간적 배경을 구체화하는 소재로 보는 것은 감정 이입의 기능을 간과한 것이므로 부적절하다.

04 종합적 감상

정답: ③ '버기더시니 늪러시니잇가'는 자신을 포함한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통해 정치적 복권을 꾀하는 것이었군.

[출제의도]

외재적 관점(작가,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의 세부 구절을 해석한다.

[정답 풀이]

- ③ '버기더시니 늪러시니잇가'는 자신을 포함한 자가 누구인지 묻는 표현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맥락이다. 이를 '직접적인 비판'이나 '정치적 복권을 꾀하는 전략적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지문과 <보기>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추론이므로 부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유배 상황에서 입을 그리워하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충신연주지사'의 성격과 부합하므로 적절하다.
 ② '거츠르신 돌'은 거짓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는 결백의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④ 임금이 곧 부르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소식이 없는 상황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담겨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괴오쇼셔'는 사랑해 달라는 뜻으로, 임금의 총애를 회복하고 싶은 화자의 궁극적 소망을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0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③ ㉔은 임의 부름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조급함과 원망을 심화한다.

[출제의도]

주요 시어 및 구절의 문맥적 의미와 화자의 심리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③ '하마'는 '벌써'라는 뜻으로, 임이 자신을 벌써 잊었느냐고 묻는 장면에서 사용되었다. 이는 약속과 달리 소식이 없는 임에 대한 서운함과, 자신을 잊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오는 조급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㉑ '前腔(전강)'은 노래의 곡조를 나타내는 음악적 용어(악학궤범의 형식)일 뿐,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가 아니므로 부적절하다.
- ② ㉒ '버거더시니'는 '우기던 사람이'라는 뜻으로, 화자를 포함한 참조자를 가리킨다. 이는 임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제3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
- ④ ㉓은 음악적 형식 요소이므로 정서적 고통의 원인과 무관하며, ㉔은 타인에 의한 고통을 암시할 수 있으나 ㉑과의 공통점으로 묶는 것은 부적절하다.
- ⑤ ㉕은 억울함의 호소이며, ㉖은 서운함의 표현이다. 화자는 마지막까지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라며 임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으므로 체념적 태도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06 말하기 방식 분석

정답: ③ ㉔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발언이며, ㉖는 자신의 내면적 소망을 투영한 발언이다.

[출제의도]

특정 시어의 기능을 말하기 방식과 연결하여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③ ㉔ '거츠르신(거짓인)'은 임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알리기 위한 발언이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 ㉖ 역시 임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이므로, 두 시어의 차이를 타인 대 내면으로 구분하는 것은 지문 맥락상 부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아니시며 거츠르신 둘'은 (자신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거짓이라는 점을 전제로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② '도람 드르샤(돌려 들으시어)'는 임이 오해를 풀고 마음을 돌려달라는 요청이므로 적절하다.
- ④ 현재 임과 떨어져 소식이 닿지 않는 단절 상태에서 자신의 진심(결백과 사랑)을 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㉔는 참조의 허위성을 논리적으로 부정하는 측면이 강하고, ㉖는 다시 사랑해달라는 정서적 갈구를 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7 시상 전개 과정 분석

정답: ② [A]에서는 외부의 증명을 통해 결백을, [B]에서는 내면의 호소를 통해 사랑을 강조한다.

[출제의도]

지문의 두 구간을 비교하여 시상 전개 과정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② [A]의 '殘月曉星'은 화자의 결백을 증명해 줄 외부적/초월적 존재이며, [B]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는 임의 마음을 돌려 사랑을 얻고자 하는 화자의 직접적이고 내면적인 호소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A]에서 죽어서라도 함께 있고 싶다는 소망은 있으나 이를 '과거 인연의 강조'로 보기는 어려우며, [B] 역시 재회를 '확신'하기보다는 '간구'하는 태도에 가까우므로 부적절하다.
- ③ [B]의 '슬웃브더(슬프구나)'나 '괴오쇼셔'는 정서의 절제보다는 오히려 직접적인 표출에 해당하므로 부적절하다.
- ④ [A]에서 공간의 확장이나 [B]에서 뚜렷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전개 방식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적절하다.
- ⑤ [B]에서 임이 자신을 잊었느냐고 묻는 대목은 절망감의 표출이지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적 태도로 보기 어려워 부적절하다.

08 화자의 정서 변화 추론

정답: ① 임에 대한 그리움 → 자신의 무고함 주장 → 임의 사랑에 대한 갈구

[출제의도]

작품의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정서 및 태도 변화를 통합적으로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① 초반부('그리수와 우나다니')에서 그리움을, 중반부('過도 허물도 千萬 업소이다')에서 무고함을, 후반부('도람 드르샤 괴오쇼셔')에서 사랑의 회복을 갈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화자는 이별을 수용하거나 현실에 체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 ③ 화자는 '過도 허물도 千萬 업소이다'라며 반성할 과오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 ④ 결백 증명은 나타나나 재회에 대한 '확신'은 지문에서 찾을 수 없으며 간절한 소망만이 나타나므로 부적절하다.
- ⑤ 임의 변심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을 잊었는지 확인하며 다시 사랑해달라고 애원하는 태도이므로 부적절하다.

09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 ② 임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애감

[출제의도]

화자의 핵심 정서인 '비에'의 구체적 원인과 양상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② '몰히마리신데'는 (임이 나를 부르겠다는 말이) 모두 거짓이 있구나라는 탄식이며, '슬웃븐데'는 슬프다는 직접적 토로이다. 이는 곧 부르겠다면 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느끼는 깊은 슬픔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자신의 진심을 계속해서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회의감'보다는 '슬픔'이 주된 정서이므로 부적절하다.
 ③ 화자는 임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으며, 오히려 '괴오쇼셔'라며 사랑을 구걸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④ 재회가 늦어지는 이유(참소)를 화자는 이미 알고 있으므로 ('벼기더시니') 당혹감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화자의 관심은 오로지 '임'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세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는 지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0 시어의 기능적 비교

정답: ③ '접동새'는 화자의 처지를 객관화하고, '귀촉도'는 화자의 그리움을 형상화한다.

[출제의도]

공동된 원형적 상징(소쩍새/접동새)을 지닌 두 작품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③ '접동새'는 화자가 자신과 '이슥흐요이다'라고 하며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므로, 처지를 '객관화'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감정 이입은 주관적 감정을 대상에 투사하여 일체감을 형성하는 기법이다.

[오답 풀이]

- ① 두 새 모두 전통적으로 슬픔과 한의 정서를 상징하는 소재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② 윗글의 화자는 임의 부름을 기다리며 재회를 꿈꾸지만, <보기>의 '다시 오지 못하는' 등의 표현을 통해 영원한 이별의 상황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윗글은 '난 이슥흐요이다'로 유사성을, <보기>는 '목메어 우는구나'를 통해 청각적 슬픔을 강조하므로 적절하다.
 ⑤ 접동새/귀촉도 설화와 연결된 한의 정서는 한국 문학의 전통적 맥락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11 표현의 효과 분석

정답: ① ㉠은 과거의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현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다.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논리적 구조 속에서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① ㉠ '거즈르신(거짓인)'은 자신을 향한 과거의 참소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현재 결백함과 무고함이라는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 '도람 드르샤'는 마음을 돌려달라는 간청이지, 미래 상황을 가정하거나 강압적인 명령을 하는 어조가 아니므로 부적절하다.

- ③ ㉢가 방어적일 수는 있으나, ㉣에서 화자가 자신의 과오를 수용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화자는 과오가 없다고 주장함)이므로 부적절하다.
 ④ ㉣와 ㉤에서 인과 관계의 역전이나 시선의 전환과 같은 기법적 특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적절하다.
 ⑤ 화자가 임의 처분을 기다리는 처지이기는 하나, ㉡와 ㉣ 자체는 화자의 적극적인 주장과 간청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수동적'이라고만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2 핵심 개념 정밀 분석

정답: ⑤ 임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을 비판하며 올바른 인식을 가질 것을 종용하고 있다.

[출제의도]

화자와 대상('님')의 관계 및 화자의 태도를 정밀하게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⑤ 화자는 임에게 '도람 드르샤(다시 돌려 들으시어)'라고 간청할 뿐, 임의 판단력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올바른 인식을 '종용(강권)'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므로 부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니미 나를 하마 니주시니잇가'에서 의구심을, '내 님물 그리수와'에서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는 임의 인식 변화와 사랑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넉시라도 님은 혼디 녀저라'는 사후에라도 함께하고 싶다는 초월적 소망이므로 적절하다.
 ④ '몰히마리신데'는 임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실망과 탄식이므로 적절하다.

13 주제의식 파악

정답: ⑤ 권토중래(捲土重來):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다시 세력을 떨침

[출제의도]

작품의 핵심 주제와 한자 성어를 연결하여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⑤ '권토중래'는 한 번 패했다가 다시 세력을 회복하여 쳐들어 온다는 뜻으로, 정치적 복수나 세력 회복의 의지가 강한 상황에 적합하다. 윗글은 임의 사랑을 갈구하는 서정적 호소가 중심이므로 주제의식과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 ① ,
 ② ,
 ③ 은 <보기>와 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작품의 핵심 주제가이므로 적절하다.
 ④ '접동새'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홀로 우는 화자의 모습에서 고립무원의 처지를 읽어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4 통합적 추론

정답: ④ 임의 사랑을 의심하는 불안감이 오히려 임의 자비에 호소하는 간절함으로 수렴된다.

[출제의도]

지문 전체의 흐름을 통해 화자의 심리적 기저를 통합적으로 추론한다.

[정답 풀이]

- ④ 화자는 '니미 나를 하마 니즈시니잇가'라며 임이 자신을 잊었을까 봐 불안해하지만, 결국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 쇼셔'라며 임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린다. 이러한 불안과 간절함의 공존이 작품의 정서적 핵심을 이룬다.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참소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데 집중하며, 임에 대한 원망도 직접적 공격이라기보다 서운함의 토로에 가깝다.
② 무고함에 대한 확신과 임의 약속에 대한 실망은 병렬적으로 나타날 뿐, 인과 관계로 묶기 어렵다.
③ 화자는 단절을 수용한 적이 없으며, 죽음을 통한 결합 소망은 시상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양상이지 최종적인 이행 단계로 보기 어렵다.
⑤ 천상적 존재(잔월효성)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알아줄 존재로 남으며, 이후의 호소도 임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지 스스로 증명하는 능동적 태도로의 '변화'는 아니다.

15 어휘의 문맥적 의미

정답: ③ 殘月曉星: 화자의 진실을 증명해 줄 존재

[출제의도]

시어 간의 대립적/보완적 관계를 통해 문맥적 의미를 정밀하게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③ ㉠ '벼기더시니'는 화자를 거짓으로 모함하여 곤경에 빠뜨린 '거짓의 세력'이다. 반면 '殘月曉星'은 화자의 결백(진실)을 알고 있는 '진실의 증명자'이므로, 거짓과 진실이라는 축에서 가장 선명하게 대비된다.

[오답 풀이]

- ① '님'은 화자의 지향점이지, ㉠과 직접적인 대립 관계(거짓 vs 진실)를 형성하는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접동새'는 화자의 정서적 대리인일 뿐이다.
④ '넋시'는 화자 자신을 의미하므로 ㉠과 대조될 수 있으나, '진실 증명'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殘月曉星'이 더 적절한 대비를 이룬다.
⑤ '뉘'는 ㉠과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의문사이므로 대비될 수 없다.